

## 행복은 노래를 타고

온라인 노래자랑 '대화가왕' 우승자

### '김태호 단장'



통기타 가방을 메고 한 사내가 산책길을 오른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도 지친 기색이 없다. 뒤에서 보면 영락없는 청년이지만, 그는 사실 7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산 실버리 합창단 단원들과 가끔 산에서 만나 연습을 한다는 김태호 씨(68세). 덕분에 추위로 움츠러들었던 숲속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채워진다.

글 편집부 / 사진 조병우

### 할아버지와 손녀 팀 '대화가왕' 우승!

지난 9월 대화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비대면 온라인 노래자랑 '대화가왕'에는 독특한 참가자가 눈길을 끌었다. 중산 실버리 합창단 단장 김태호 씨와 전 단장 강광석 씨(71세), 태호 씨의 외손녀 조수아 양이 결성한 '할아버지와 손녀' 팀이다. 이들은 수준급의 통기타 실력과 화음을 뽐내며 가왕 자리에 올랐다.

“중산 실버리 합창단 지휘자 추천으로 노래자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연습하는 걸 듣던 수아가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같이 나갈까?’ 했더니 좋다하기에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아가 안무도 혼자 다 만들었어요.”라며 손녀 자람에 여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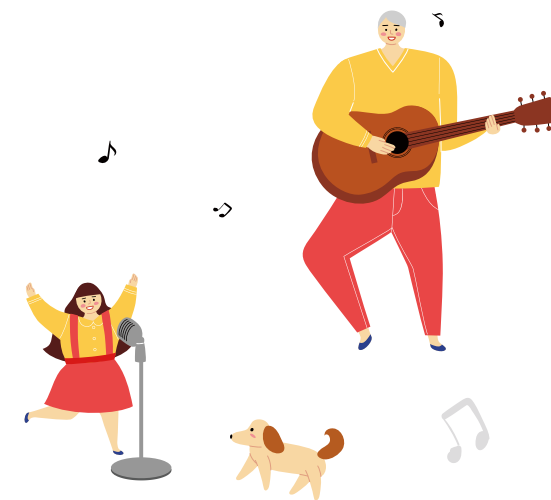
### 통기타만 있으면 어디든 무대가 된다

손녀 앞에서는 여느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지만, 태호 씨의 마음만은 젊은 세대 못지않다. 40년 가까이 성가대를 하며 노래 실력을 다져온 그는 2018년 중산 실버리 합창단에 입단했다. 올해는 합창단 단장을 맡으며 더욱더 활약할 것을 다짐했는데, 애석하게도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활동이 무산됐다. 그러나 그는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안은 찾기 나름이더라고요. 소개울공원과 안곡습지공원에 회원 몇몇이 마스크를 쓰고 모여 노래 연습을 했어요. 우울감은 바람에 따라 날려 보내고, 건강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강광석 씨와 유튜브 채널에 노래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며 전 세대와 소통하고 있다.

###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의 비결

태호 씨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건강하게 사는 비결로 꼽는다. “고양시에는 산과 공원이 많아요. 여러분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 하고 싶은 걸 못했지만, 지금은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잖아요? 여러분도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직장 생활로 하고 싶은 걸  
못했지만, 지금은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잖아요?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